

고대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공자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

김덕삼** · 이경자***

- I. 들어가는 말
- II. 교육 내적 변화
- III. 교육 외적 변화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자의 교육 사상이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와 같은 교육 외적 방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과 사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 하였다.

공자에 의해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사학(私學)의 출현, 지식인 계층의 활성화와 지식의 증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등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적으로는 교육적 평등 추구, 사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253)

** 대전대학교 교양교직부 부교수, 제1저자.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교육의 시행, 지식의 공유화 등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외적으로는 사회공동체와 조직,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러한 것이 고착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2500여 년 정도 존속되던 공자의 사상은 근현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초기의 행동과 자세 즉, 새롭고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하고, 많은 백성의 생각을 수용하여 옛 학문을 발전시키고,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정신과 행동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상호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나 교육이 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교육은 과거의 낡은 유산을 전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답하는 능동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공자, 교육, 패러다임, 중국, 배움, 깨달음

I. 들어가는 말

공자(孔子)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만세사표(萬世師表)의 교육가이다. 그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학(私學)을 창립하였고, 생을 마칠 때까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공자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중국을 포함하여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주지하듯이 공자의 위대한 점이나 유학의 성공 요인은 당시 가장 새롭고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하고 많은 백성의 생각을 수용하여 옛 학문을 발전시키고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은 나와 여기와 지금의 문제에 대한 성찰(Reflection)에서 시작하는지 모른다.¹⁾

공자로 인해 촉발된 교육적 변화, 공자로 대표되는 제자백가의 학문적 발전 그리고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인문학적 변화로서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가 지적한 차축시대(Axial age)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는 인문지성의 영향 등으로 미루어, 공자 사상의 영향은 인류 지성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만하다.²⁾

선행연구에서는 공자의 교육적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재조명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³⁾ 공자에 의해서 촉발된 교육적 변화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했고, 이러한 전환이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와 같은 교육 외적 방

-
- 1) 선진시기의 유가 사상은 일상 속에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했다.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김덕삼·최원혁, 『先秦儒家에 나타난 共感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儒教思想文化研究』 54집, 한국유교학회, 2013, 390쪽.)
 - 2) 김덕삼,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257~258쪽.
 - 3)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중국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근대 교육의 변화, 과거제도에 의한 교육의 변화 등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다. 김덕삼·이경자, 『중·서 교육 패러다임의 접변과 변화』, 『비교문화연구』 3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김덕삼·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변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공자에 의해 촉발된 교육적 변화가 사회 변화로 연결되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후속연구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존 패러다임 연구와 달리 공자에 대한 연구는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자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간 단위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1년과 현재의 1년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공간도 마찬가지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공자가 활동했던 산둥(山東)지역 혹은 중원(中原)지역 정도에만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다. 그 변화의 확장 속도와 확장 영역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잣대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⁴⁾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공자 개인이 아닌 공자의 교육 사상과 그의 교육 사상에 의해 파생된 사상과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 내적·외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언 모리스(Ian Morris)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축적한 사회발전 지수를 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가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네 가지 특징인 에너지 획득, 조직화와 도시화, 전쟁 수행 능력, 정보기술은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 물론 그의 지적처럼 이러한 지수가 완전하지도,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최상의 것도 아니다.⁵⁾ 그러나 역사를 다루는 분야에서 거

4) 예를 들어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지식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 데 걸린 시간은 1750~1900년까지 150년, 1900~1950년까지 50년, 1950~1960년까지 10년이었고, 2020년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두 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231쪽.)

5) 그러면서 모리스는 학문적으로 생물학, 사회학, 지리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물학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학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 지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생물학과 사회학은 인간 사회의 유사성을, 지리학은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지리 결정론과 비슷하지만, 지리 그 자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역사는 우연적 사건의 연속도 지리적 환경에 이미 내재된 결과의 단순한 발현도 아닌 인간, 사회, 지리 간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언 모리스

대 담론이나 일반화 법칙이 비난을 많이 받고 인기가 없는 것처럼 모리스의 이론적 틀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일반적 주제가 제시되어, 명료하게 그 대상이 보여질 때 다양한 반박 사례가 쏟아져 ‘수정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던 기존의 혼한 일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것도 공자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육적 영향에 의해 교육 외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모리스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모리스의 이론 틀 보다는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해온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의 AGIL도식을 기초로 분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 판단된다.⁶⁾ 파슨스가 언급한 각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경제, 정치, 학교 등의 사회 공동체나 조직, 문화 혹은 습관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孔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교육 내적 변화와 교육 외적 변화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교육 외적 변화에서는 파슨스가 언급한 AGIL의 대표적인 경제, 정치, 학교 등의 사회 공동체나 조직, 문화 혹은 습관의 4가지에서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정치와 경제를 묶어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또한 학교 등의 사회 공동체나 조직의 경우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물론 학교는 교육 내적 변화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지만, 편의상 파슨스의 구분에 기초하여 교육 외적 변화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공자로 인하여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으킨 변화를 찾는데 있어서 교육 내적 변화와 동시에 의미 있는 것은 학교 등의 사회 공동체 조직이다. 이는 마치 공자의 교육 사상이 유가의 사상

저, 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글항아리, 2013, 856~882쪽.)

6) 물론 파슨스의 이론도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등에 의해 수정되었고, 파슨스의 사회시스템이론은 자기조직성론이나 오토포이에시스이론과 연관되어 보다 보완된 이론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이것을 場과 연결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다. (김덕삼, 『場의 변화에 따른 孝의 역할 고찰』, 『儒敎思想文化研究』 52집, 한국유교학회, 2013, 158쪽.)

적 근간이 되고, 유가라는 집단의 노력과 실천이 현대의 정치권력과 만나 정치철학으로 자리 잡아 결국 수대 이후 과거제도의 주요 과목으로 정착되어 중국 사회와 문화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입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것의 남상(濫觴)은 공자의 교육 사상이었지만, 이를 확대하고 뒷받침해 준 것은 그를 따르는 후학, 그의 사상이 필요한 정치 권력, 그리고 이를 사회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킨 교육이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을 파슨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학교 등의 사회 공동체나 조직, 정치와 경제, 문화 혹은 습관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II. 교육 내적 변화

1. 사상적 동력

공자의 영향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오랫동안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다. 선진시기의 사상가와 학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망했다. 도를 얻는 것, 깨달음은 다른 선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사 전반에 걸쳐 현인들이 얻기 바라는 것이었다. 각각의 것이 동일한 목표로서 표면적 양식만 달랐을 뿐 내재적 의미는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공자의 득도(得道)의 방법은 노자(老子)와 묵자(墨子)와도 다른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로 ‘배움이란 것을 통한 도를 얻는 것’이었다.

사실 공자가 활동하던 당시 배움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배움에서도 인문학적 배움은 특히 더 중요했다. 예를 들어 전란으로 어지러웠던 춘추 전국시대에 하층민에서 ‘사(士)’계층으로 진입하고 나아가 공경의 지위까

지 올랐던 자들은 모두 같이 아닌 글과 언변을 통해 드러나는 학식에 의지하였다.⁷⁾ 전손(錢遜)도 이와 유사하게 공자의 교육사상을 설명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을 도를 이루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⁸⁾ 도를 행하는 노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자 배움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자가 말한 70세는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하여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나이로 보인다. 그것은 공자가 배움과 깨달음을 일체화하여 배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 배움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배움의 대상인 지식은 유가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바로 덕성(德性)의 지와 견문(見聞)의 지이다. 무릇 감각기관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모두 ‘보고 들어서 아는 것’에 속한다. 마음의 직관으로 얻은 내재지식은 ‘덕성의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재(張載, 1020~1077)가 말한 천덕양지(天德良知)와 왕양명이 말한 양지(良知)이다.⁹⁾ 이러한 공자의 지식은 그의 후학 맹자와 순자에서 발전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식을 본성의 내부로 포섭하느냐 외부에 두느냐에 있다. 맹자는 지식을 본성 안에 포섭해서, 사덕(四德) 또는 사단(四端)이 협력하여 사람이 도덕적 성공으로 나아가게 했다. 순자는 지식이 본성 밖에 있으면서 본성을 규제해서 사람이 도덕적 성공으로 나아가게 했다.¹⁰⁾ 결국 이 두 사람의 지식은 덕성의 지와 견문의 지 사이의 차이이다. 맹자는 도덕적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공감(共感)을 중시했고, 순자는 신지(新知)를 중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배움을 통해 도를 얻고자 하는 과정의 대상일 뿐이다. 공자의 교육 목적은 “명덕(明德)을 밝히고 친민(親民)하여 지선(至善)에 이르는 것”이며, 최종의 목적은 바로 인(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 진정 저, 김효민 역,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45쪽.

8) 錢遜, 『先秦儒家』,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5, 45쪽.

9) 黃濟 저, 김귀성·이경자 역, 『중국 전통교육 철학의 이해』, 원미사, 2013, 309쪽.

10) 신정근, 『철학사의 전환』, 글항아리, 2012, 244쪽.

배움과 깨달음을 일체화한 공자의 사상은 그의 교육적 행위와 철학에 근간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공자와 그를 이은 유가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진 사상가와 제자백가에 비해 교육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은 배움의 방법이고 배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자에게서 도의 깨달음이 중요한 만큼 배움, 학, 학문도 동급으로 중요하였다.

공자의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는 그의 학생들에게 이어졌고, 이는 그의 사학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 굳건해 질 수 있었다. 공자가 교학활동을 하였던 40여 년 동안 배출한 3000여 명의 학생과 72현능을 통해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¹¹⁾ 제자 중 덕행에 뛰어난 학생으로 안연(顔淵),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정사에 뛰어난 염유(冉孺), 자로(子路), 언어에 뛰어난 재아(宰我), 자공(子貢), 문학에 뛰어난 자유(子有), 자하(子夏) 등이 각자의 방면에서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를 실천하였다. 공자의 많은 제자와 뛰어난 수제자들은 선진시기 ‘백가쟁명’의 중심축이 되어 유가를 더욱 발전시켰다. 공자를 시작으로 전국시대 중기에 이르러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개인이 여기저기서 학교를 설립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배우지 않으면 학과가 없었고 학과가 없으면 배움이 없는’ 국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¹²⁾ 각 가는 모두 학과를 형성하여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쳤고 대립 중에 융합, 통일 중 투쟁, 상반되는 중에 일치되어 백가쟁명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선진시기의 교육학술이 예전에 없는 번영을 누리도록 하였다.¹³⁾ 결론적으로 공자와 그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는 교육의 발전을 가져왔고, 교육의 발전은 확대·재생산되어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유인하였다.

11) 『史記』孔子世家: 弟子三千人, 身通六藝者七十二人.

12) 공자에 의해 시작된 사학은 다른 학과와 달리 중국 역사에서 핵심사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 동력은 바로 배움을 깨달음과 일체화한 것에 있다. 교육이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다.

13) 江石滿, 『中國教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9쪽.

2. 교육적 변화

공자에 의해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학의 정착, 둘째, 이로 인한 지식인 계층의 활성화, 셋째, 앞의 영향에 따른 지식의 증가와 사회의 변화 촉발이다. 그 가운데 교육 내적으로는 첫째와 둘째의 변화가 의미 있고, 셋째의 경우는 교육 외적 변화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학을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지식인 계층을 활성화 한 것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차별을 둔 기존의 교육과 달리 차별을 최소화하였다.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실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깨달음은 빈부귀천(貧富貴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는다. 깨달음엔 차별이 없고,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자와 동시대를 살거나 활동하였던 인물과 사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공자는 깨달음을 배움과 일체화시켰기에, 깨달음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평등은 바로 배울 수 있는 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배움을 구하러온 사람에게 누구나 배움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 이런 이유로 “말린 고기 한 묶음 이상을 가지고 와서 예를 갖춘 사람에게, 내가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다”¹⁴⁾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교육함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의 토대가 되는 “有敎無類”¹⁵⁾를 주장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평등교육, 기회 균등의 교육이 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춘추시대에 공자는 다른 스승과 달리 신분의 고

14) 『論語』述而: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15) 『論語』衛靈公의 무류(無類)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르다. 마융(馬融)은 종족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주자는 기습(氣習)의 차이에 따른 선악의 부류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포괄하여 기습과 신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만인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고,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즉, 공자는 학생을 모집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령이 적든 많든, 어디서 온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지 막론하고 귀족 집안의 자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는 모두 배움의 기회를 선사했다. 공자는 ‘가르침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교육은 빈부, 직위, 그 사람의 우매 정도, 종족과 지역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고대의 백가사상이 불평등 사회에서의 사회적 형평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이중에서 오직 유가만이 이 문제를 기초에서부터 다루었던 것이다. 유가는 사회적 형평의 가장 올바른 형태는 교육의 평등이고 이것이 없이는 사회 각 계층의 불평등한 권리·의무 및 기능을 중국적으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믿었다.¹⁶⁾ 이러한 공자의 교육적 평등은 어떤 면에서 손문(孫文 1866~1925)이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平庸愚劣(평범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로 聖賢才智와 대비된다)의 마음과 통하는 곳이 있다.

둘째, 사학의 시행이다. 앞서 언급한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라는 사상적 토대위에서 차별의 폐지라는 구체적 실천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사학의 시행이라는 파생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배움이라는 것은 관부에 있었기 때문에(學在官府)’ 민간에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수의 귀족에 제한되었다. 따라서 민간에서 사학의 출현은 매우 새로운 일이었다. 2500여 년 전의 춘추시기 중국 동부의 노(魯)나라 추읍(鄒邑)에 새로운 학교가 출현했다.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세운 학교다. 설립한 사람은 물론 공자이다. 당시의 공자는 30세 정도로 그는 자신의 말에 따라 ‘뜻을 세우는(而立之年)’에 따랐다.¹⁷⁾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무제에 이르러 독존유술(獨尊儒術)의 정책 속에 유가

16)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社會史的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18쪽.

17) 江石滿, 『中國教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7쪽.

의 사상과 학문이 국가 통치 이념이자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되고, 관학에서도 공부하는 중요 내용이 되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유교의 교세확장과 더불어 태학(太學)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재능을 구비한 사람을 추천하는 찰거제도(察舉制度)도 도입되었다. 7세기에 접어들자 당(唐)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관료로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함에 따라서 한층 더 폭넓은 진보가 이루어졌다.¹⁸⁾ 결국 공자의 사상은 이러한 교육 제도적 보완 속에 사회전반에 확대 재생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랜 세월 중국과 동양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셋째, 지식의 공유화다. 지식의 공유화는 앞의 조건들이 실천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부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물이 바로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인터넷은 인류에게 Know How의 문제를 Know Where보다 중요시하게 만들었다. Know Where의 핵심인 ‘정보’를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혁명이 정도 차이가 있을 지언정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이’의 탄생이다. 채륜(蔡倫, ?~121?)에 의해 종이가 대량생산되면서 지식은 암기하여 전달하거나, 비싼 종이나 비단 혹은 무거운 대나무와 나무에 쓴 기록으로 소수 몇 명이 공유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대량 생산된 종이에 편리하게 정보를 보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술적인 변화라면, 인간 스스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사건은 바로 공자에 의해 발생되었다. 공자는 제한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수되는 정보를 타파하였다. 소망하는 사람 누구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 이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 놓았다. 이로서 지식의 확산이

18)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 社會史的 研究』, 281쪽.

일어나고 사회와 문화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바로 계층간의 이동, 하류층의 상류층 진입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교육을 통해 담보할 수 있었다.

III. 교육 외적 변화

1. 사회공동체: 학교

교육 내적 변화는 결국 공자 이후의 지식 증가와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유가 교육의 확장과 확대를 비롯하여 국가 관리 선발의 요체가 됨으로 중국 사회와 문화를 움직이는 중요 동인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학교다.

중국에서는 공자 이후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가 경전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공자 이전에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와 같은 여섯 방면의 지식과 육예(六藝)를 가르쳤다. 공자는 사학을 세워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그의 제자와 후학은 공자의 사상을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자의 사상과 정신은 학교 교육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사학뿐만 아니라 관학에서도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의 학문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공자의 사학이 지닌 중요한 특징은 교사와 학생이 반드시 귀족계급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이다. 학생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교사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습연한도 자유로웠다. 또한 개방적인 분위기로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당시 학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¹⁹⁾

19) 이경자, 『중국 고등교육사』, 한국학술정보, 2008, 56쪽.

하지만 한무제의 유가독존(儒家獨尊) 이후 적어도 공자의 학문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관학과 사학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었다. 바로 둘 다 공자의 학문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에서 관학과 사학이 서로 상호 보충하여 발전한 것은 중국고대 교육제도의 커다란 특징이다.²⁰⁾

중국 고대 관학제도가 가장 성숙한 시기는 당대였다. 당대는 행정에 따라 설립한 중앙관학과 지방관학이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형도 상당히 완비되었다. 유가의 경전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 각종 전문학교, 유럽보다 1000년이나 빨리 설립한 실과학교, 동시에 행정, 연구, 교학을 겸비한 다양한 성격의 특색 있는 학교가 있었다. 특히 당, 명, 청 등의 태학 국자감(國子監)에는 외국학생들이 와서 유학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당대의 고등교육 규모는 예전에 없이 발전했으며 일본, 신라, 백제, 고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동서 각 국의 유학생이 있었다. 당시 국자감은 많은 학자와 유명 인사들이 모이고, 장서도 매우 풍부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유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고대지방관학이 가장 흥성했던 시대는 명대였다. 주원장(朱元璋, 1368~1398)은 농민봉기의 주도자며 뛰어난 정치가로 역사의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하를 다스림에 인재를 근본으로 하고 인재를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국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전성기에 전국에 설립한 학교는 1700여 곳이나 되어 명초기에 성진에서 향촌, 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으며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학교가 많았다.²¹⁾ 이러한 학교는 지식의 확대와 재생산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

20) 관학은 우수한 인력, 물력이라는 조건에 과거의 영향을 받아 사생, 교학의 질에 있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배양한 사람도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학은 비교적 자유롭고 활동적이어서 사생관계도 매우 적극적이고 교학내용과 방법도 비교적 활발하고 교학의 질도 비교적 높았다. 중국 역사상 유명한 사상가, 과학자, 문학가는 대부분 사학에서 나왔다. (江石滿, 『中國教育』, 14쪽.)

21) 江石滿, 『中國教育』, 14쪽.

자의 사상과 유가의 문화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다. 결국 공자에서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천천히 그리고 오랜 시간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근본적 동력은 학교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자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들어날 수 있었다.

2. 정치와 경제

교육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의 발전이 교육의 발전과 직결되고, 교육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고대 중국을 다스리는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공자의 사상이었다. 공자의 사상은 흐트러진 세상을 덕(德)으로 다스리고자 하였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옛 것과 낡은 것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제후들이 권력을 다투고, 주천자(周天子)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잃고, 예의와 법도가 심각하게 훼손되던 시기였다. 그것은 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²²⁾ 이처럼 도가 없어진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공자처럼 평생 교육에 종사하여 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정치를 통해서다. “정치란(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政者正也.”²³⁾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명(正名)이었다.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자는 반드시 명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²⁴⁾ 바로 ‘명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정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

22) 『論語』 季氏에 나오는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이란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3) 『論語』 顏淵.

24) 『論語』 子路: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²⁵⁾고 말하였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울 때 비로소 흐트러진 기강이 바로세워질 수 있고, 이로써 예와 법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흐트러진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를 뽑아야 하고 올바른 관리를 뽑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 공자의 주유천하(周遊天下)는 자신이 오랜 정치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를 뒤로 하고 그가 교육에 매진한 것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직접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나, 여기 그리고 지금’에 맞는 행동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근본은 자신과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중시하였고 자신도 직접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국가를 다스리고 근간을 바로 잡는데 매우 필요했다. 그리고 공자의 교육 활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정치 지향적이었다. 공자에게 있어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재와 덕을 겸비하여 세상을 다스릴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들이 관료가 되어 인정(仁政)과 덕치(德治)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전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한무제에 이르러서였다. 한대 사학의 주류는 유가 경학이었다. 이것은 한무제가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한 백가를 배척하고 유가만을 중시한다(罷黜百家, 獨尊儒術)는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한무제의 통치아래에서 유교가 다른 사상을 누르고 우위를 확보하면서, 태학이 참된 유교정신의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수도에 건립될 수 있었다.²⁶⁾ 물론 이렇게 하고서도 한대의 교육은 대다수 서민에게까지는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11세기까지 계속되었다.²⁷⁾

25) 『論語』 顏淵: 君君, 臣臣, 父父, 子子.

26)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 社會史的 研究』, 18쪽.

중국 고대의 교육은 결국 관리를 양성하는 것으로 집중된다. 어떤 면에서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이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과 사회를 잘 다스리는 능력, 체제 안정에 집중된다. 그래서 교육이 발전할 때 정치는 청렴하고, 특별히 능력 있는 관리는 전체 속에 가려졌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사람간의 관계와 조직간의 조화를 중시한 친화력과 협동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여기에 공자의 사상과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

정치와 더불어 경제 또한 중요하다. 경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결정적 동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행위는 1차적으로는 먹고 사는 경제적 행위를 이루고, 2차적으로 명예 추구와 자아실현의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임시선(任時先)은 춘추전국 시대에 학술사상이 발달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춘추, 전국시기에는 마침 농업생산이 진보하여 공업생산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 때 사회생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구시대의 생활관계로 하여금 동요를 일으키게 했다. 생활수요와 생활관계가 맞지 않아 일어난 내재적인 모순의 확대는 곧 사회변동을 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의 변혁에서든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다.”²⁷⁾ 그의 지적에서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광의적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의 특징은 철기의 시용과 우경(牛耕)을 이용한 기술의 발달, 여기서 파생된 사회적 변화로 요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경의 발명과 철제 농구의 사용이 춘추 중기 이후에 출현하여 전국시대에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첫째, 씨족 공동체의 분화를 촉진했다. 농업

27) 『文獻通考』 卷40~41. 何柄棣, 『中國科學制度的社會史的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18쪽.

28) 임시선 저, 차석기 역, 『중국교육사상사』, 교학연구사, 1989, 109쪽.

기술의 발달은 중전에 행하였던 집단 농경방식을 단독 경영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하여 5-6인의 가족으로 형성된 소농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춘추시대에는 열국 간의 대립 항쟁의 시대였으므로 군수공업과 토목공업이 발달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상업이 수공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상업이 확대됨에 따라 상인계층이 새로 형성되었던 시대였다.²⁹⁾ 그리고 이는 도시와 화폐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살기는 좋아졌지만, 욕심도 증가하여 분열과 경쟁이 확대되었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열국 간에도 심화되었다. 그래서 전쟁도 춘추시대에는 전리품 획득과 상대국 복속이 목적이었다면 전국시대에는 토지 획득과 적국 병력의 말살에 전쟁의 목적이 있었다. 무기 역시 청동기에서 철기 제품으로 바뀌면서 전쟁은 더 잔인해졌다.³⁰⁾

경제의 개념이 지금과 다르기는 하지만 공자는 교육과 정치 그 다음으로 중시하였다. 당시, 철제의 사용과 우경을 이용한 농업기술의 발달은 사회적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변화를 빠르게 유도하였다. 게다가 씨족 공동체의 분화, 주왕실의 무력화 등은 새로운 상인 계층의 형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인 계층의 형성으로 커다란 변화의 전기를 맞이할 상황을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각 제후국을 중심으로 패권을 잡기위한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치와 경제를 통해 국력을 키우려는 당시에 필요한 것은 배운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었다. 그래서 많은 제후국들이 새로운 계층인 사를 자기 나라에 불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교육 사상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과 이들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공자의 교육 행위가 교육 내적 외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여기서 지식의 확

29) 상업 경제가 공업 경제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상업 경제가 춘추전국시대의 사회 경제에 새로운 기초를 세워 놓았다. 예컨대 太史公은 “가난으로 富를 구하고자 하면 농사는 그만 못하고, 工은 商만 못하니 자수를 놓는 것은 시장에서 그것을 파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30)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77~86쪽.

대와 지식인 계층의 출현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심화된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수요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어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공자의 교육 사상에서 촉발된 ‘점’은 교육 내외적 변화를 통해 ‘선’으로 확장되고, 이는 다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촉발한 ‘면’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 속에 중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한 ‘입체’로 자리 잡았다.

3. 문화 혹은 습관

공자와 그 제자에 의해 이루어진 유가의 교육 사상은 사학의 부흥과 지식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오며 사회의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것이 고착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교육 기관을 통해서였다. 이는 경로의존성의 경우처럼 처음에 결정해서 시행했던 것보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훨씬 더 크고 많은 에너지를 가져와야만 바꿀 수 있기에 쉽게 변화될 수 없었다. 이처럼 고착화의 길을 걷다가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 1911년 중화민국의 건립, 1919년 5·4운동 그리고 1970년대의 문화대혁명 등의 충격을 겪으며 조금씩 변화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무기보다 무서운 인간의 사상이었고, 이를 현실로 옮긴 것은 교육적 실천이었다. 여기서 촉발된 변화가 문화 혹은 습관에 미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예(禮)를 중시한 것이다. 공자의 교육적 실천에서 앞서 언급한 교육, 학교,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한 가지 더 들 수 있는 것이 예를 중시한 것이다. 예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수신(修身)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는 조직과 단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율이다. 사회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

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국가를 통치하고 기강을 굳건히 하는데 있어서도 예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기본 틀이었다.

이러한 예는 공자이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봉건 정치 체제를 수호하거나 봉건주의를 옹호하는 역할로 고착되었다. 그래서 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명말 청초의 학자 방이지(方以智 1611~1671)는 “도는 예에 거하고, 예 밖에는 도가 없으며, 도 밖에는 예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³¹⁾ 하지만 이러한 고착은 후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엄격히 말해 비판의 대상은 공자와 그의 사상이 아니다. 바로 서시빈목(西施瞶目)처럼 내용과 본질은 망각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한 행태에 있는 것이다. 하병체(何柄棣)의 경우 “봉건질서를 옹호하려는 유가 이상주의자나, 『관자』속에 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학파나, 봉건적 특권 중 어떤 부분은 공격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구제해주려고 하는 묵가나, 봉건제도의 사멸을 촉진시키는 데 힘을 쏟은 법가나 할 것 없이 모두 불평등한 사회라는 이념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전히 불평등하다. 게다가 지금의 평등도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불평등할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유가의 사상과 행동은 당시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혁신이었다는 것이다.³²⁾

31) 黃濟 저, 김귀성·이경자 역, 『중국 전통교육 철학의 이해』, 303~304쪽에서 재인용.

32)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社會史的研究』, 4~5쪽, “그들은 비록 다양한 중간계층에 대한 태도는 각각 다르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확연히 구분하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法 앞에서 民은 평등해야 한다는 법가의 주장조차도 가장 권위적인 국가와 사회로 귀착되는 것이니, 이것은 이론적으로 고대의 封士와 특권을 제거하였다고는 하여도, 치자와 피치자를 양극으로 분화시키고 양자의 제도적 불평등을 더욱 더 정당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계층사회의 이념

둘째,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사(士)’의 출현을 도왔다. ‘사’는 춘추시기에 새로 출현한 사회 계층이다. 사계급에는 문사(文士), 무사(武士) 및 문무에 능숙한 사가 있다. ‘사’의 최초는 노예주 귀족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일부는 평민계층에 속하고, 일부는 신흥지주계급에 속한다. 사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신흥계층이다. 각 제후국의 집권자는 자기의 통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현명한 사람이나 사를 모집했다(招賢納士)’. 사는 행동 면에서 비교적 자유가 많았고, 통치자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사를 기르고 사를 이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를 배양하려는 분위기는 사학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서 언젠가는 ‘배움이 뛰어나 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춘추말기에 이르러 사학은 융성해지고, 유가와 묵가의 사학은 당시의 ‘현학(顯學)’ 즉 저명한 사학이 되었다.³³⁾ 이러한 가운데 유가의 사학은 으뜸이었다. 공자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영향력과 규모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새로운 질서의 탄생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의 공평성을 실현하였다. 공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능 및 여러 능력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봉건제도 하에서는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많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공자의 제안은 교육기회가 상하층에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우수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공자시대까지는 교육이 실제로 봉건귀족의 전유물이었음

을 완전히 버린 유일한 학파는 도가였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그들의 바로 그 반사회적 태도 때문에 도가는 전통적인 중국의 사회이념에 영속적인 영향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1840년대에 서양에 의해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된 후에야 중국인은 처음으로 근대 서양의 사회적 정치적 평등개념에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박제가 저, 이경자 역, 『중국의 고대학교』, 원미사, 2004, 55~59쪽.

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에게 그 출신 고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도덕을 같이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힘써 실천에 옮긴 공자는 사실 사회적·지적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자와 그 제자들이 봉건제도를 영속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세습적 지위가 아닌, 개인적 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질서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 되고 말았다.³⁴⁾ 교육의 확대를 통해 배출된 새로운 지식인 계층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불러오면서 사회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층사회를 지지함과 동시에 그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주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공평성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사회이념이 봉건적 한계를 초월해서 봉건제도가 붕괴된 후에도 오랫동안 유용하게 남아 있게 된 이유이다.³⁵⁾ 이처럼 공자의 교육적 실천은 문화 혹은 습관의 변화에 중요한 변화를 미치며 오랫동안 중국과 주변국에 존재했다.

IV. 나오는 말

공자에 의해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학의 정착, 이로 인한 지식인 계층의 활성화, 이에 따른 지식의 증가와 사회의 변화 등을

34) 전통 중국의 사회계층은 대체로 정신노동자가 통치하여야 하며 육체노동자가 통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맹자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계층형성의 관례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포괄적인 이론에 불과하니 과거 이천년을 통하여 모든 정신노동자가 다 지배층은 아니었으며 또한 중국의 전통사회가 반드시 두 계층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었다. (何柄棧, 『中國科舉制度的社會史的研究』, 282쪽.)

35) 앞의 책, 7쪽.

불러 일으켰다. 교육 내적으로는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 교육적 평등 추구, 사학의 시행, 지식의 공유화 등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외적으로는 사회공동체와 조직,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공자가 일으킨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상호 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공자를 핵심으로 하는 유가의 교육 사상은 사학의 부흥과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오며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근현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공자와 그의 후학들이 행하였던 가장 새롭고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하고, 많은 백성의 생각을 수용하여 옛 학문을 발전시키고,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정신과 행동을 잃어버리고 안주하였기 때문이다.

2500여 년 전의 공자는 당시의 낡은 구태를 혁파한 조용한 혁명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영향력이 실로 커서 중국과 동양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신과 핵심을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안주했던 후대에 있는지 모른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있어서 황런위는 “중국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 마리의 물짐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새가 될 수 없다’고……. 중국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출현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출현시킬 뜻도 없었다”고 했다.³⁶⁾ 황런위의 글에 비추어 공자에 대한 비판은 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의 방식에서 이제는 ‘환골탈퇴’하려는 후학들의 의지와 ‘불필요’의 상황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자로 인하여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동인(動因)은 호추원(胡秋原)의 지적처럼³⁷⁾ 첫째, 당대의 새롭고 광범위한 지식위에서

36) 황런위 저, 이재정 역,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산, 2001, 46쪽.

37) 하지만 후대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점을 잃어버려 유학을 고사시켰다. (胡秋原,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옛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하며 셋째, 시대의 요구를 따르고, 시대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동인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접목해서 생각해 도 좋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이론적 틀은 주로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었고,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지식과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은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보화로 지식의 양은 급속히 증가했고, 삶의 기준도 다양화되었다.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창조, 순발력, 협업, 기회 포착, 실행 등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로 융합하여 매우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현대의 교육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교육 패러다임의 틀을 벗고 새로운 틀을 찾아야 한다.³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발전시기에는 교육도 발전하지만, 쇠퇴기에는 교육도 쇠퇴한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나 교육이 변하는 전환이 발생한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교육은 과거의 낡은 유산을 전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답하는 능동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古代中國文化與中國知識分子』上冊, 北京: 中華書局, 2010, 111쪽.)

38)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231~233쪽.

• 참고문헌

『史記』, 『論語』, 『孟子』, 『荀子』, 『文獻通考』

김덕삼,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_____, 『場의 변화에 따른 孝의 역할 고찰』, 『儒敎思想文化研究』 52집, 한국유교학회, 2013.

김덕삼·최원혁, 『先秦儒家에 나타난 共感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儒敎思想文化研究』 54집, 한국유교학회, 2013.

김덕삼·이경자, 『중·서 교육 패러다임의 접변과 변화』, 『비교문화연구』 3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_____,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변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江石滿, 『中國教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곽제가 저, 이경자 역, 『중국의 고대학교』, 원미사, 2004.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신정근, 『철학사의 전환』, 글항아리, 2012.

이경자, 『중국 고등교육사』, 한국학술정보, 2008.

이언 모리스 저, 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글항아리, 2013.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임시선 저, 차석기 역, 『중국교육사상사』, 교학연구사, 1989.

錢遜, 『先秦儒家』,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5.

진정 저, 김효민 역,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 社會史的 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胡秋原, 『古代中國文化與中國知識分子』上冊, 北京: 中華書局, 2010.

황런위 저, 이재정 역,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산, 2001.

黃濟 저, 김귀성·이경자 역, 『중국 전통교육 철학의 이해』, 원미사, 2013.

The Changes of Paradigms in Chinese Education

—Centering on Confucius' Idea of Education—

Kim, Dug-Sam* · Lee, Kyung-Ja**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Confucius' idea of education that has exerted an enormous influence not only on Chinese but also on East Asian education in general. This study will, first of all, focus on how the educational changes promoted by Confucius led to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and how such a transformation exercised an effect not only on education but also on other external area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with regard to their social correlations. The final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figure out, based on these studies, the changes of educational paradigms and their social correlations.

The changes of educational paradigms instigated by Confucius were based on a philosophical foundation that learning and enlightenment can be integrated into one idea. Such changes also brought abou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education, the following brisk activities of intellectual class, and the subsequent promotion of knowledge and social changes. Inside the realm of education, the changes generated an integration of learning and enlightenment, pursuance of educational equality, implementation of a private education system, and a sharing of knowledge. Outside the realm of

* Professor, DJU

** professor, GNU

education, it exerted diverse influences on social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 Confucian idea of education raised by Confucius and his disciples gave rise to the promotion of private education and expanded reproduction of knowledge, thus leading to social changes. Such trends could be consolidated and accelerated thanks to education and educational institutes. The idea of Confucius, however, has taken a new turn amid the chang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some 2,500 years after its emergence. It is because intellectuals have lost the spirits and a sense of conduct upon which Confucius and his followers made use of up-to-date and broad knowledge, developed old learning by incorporating the thoughts of many people, and attempted to settle the hitherto unsolved problems in society.

This study has reaffirmed that educational changes and social changes are closely related and deeply affect each other. When the relations are not smooth, however, society and education have to suffer from transformation. Although the existing paradigms are denied and replaced by new ones with the accumulation of outcomes resulting from diverse attempts, the new ones cannot be sustained permanently but will undergo a process of generation, development, decline, and replacement. In conclusion, education should not only remain in passing down the old and time-honored legacies but also take an active part in examining new changes and in requirements and finding solutions.

Key words: Confucius, education. Paradigm, China, learning, enlightenment

필자 E-Mail: konglai@naver.com/beihai@gnu.ac.kr

투고일: 2014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8일

